

현충일 계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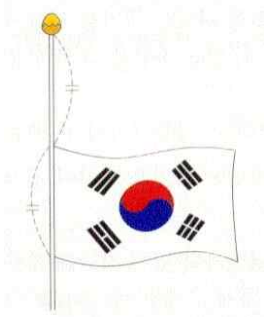


* **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1분간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머리 숙여 조용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사이렌이 울린다.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시다.

○ 오는 6월 6일은 제67회 현충일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 조기(弔旗) 게양 방법 》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내려 게양

△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 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